

# 창단 첫 '10승 벽' 깬 페퍼스...박정아 "팀원들 잘해서 승리"

### 정관장 상대 셋아웃 승...박정아, 최다 블로킹 7개·19득점 올려 테일러 16득점·박은서 64.3%의 공격 성공률로 10득점 등 활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주장 박정아와 아포짓 테일러가 팀의 '창단 첫 10승'의 주역이 됐다. 페퍼스는 지난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20승 9패·승점 55)에 셋아웃 승을 거뒀다.

특유의 높이를 살려 블로킹 18개를 잡아내면서 상대(3개)를 압도한 페퍼스는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네 시즌 만에 두 자릿 수 승수를 달성했다.

경기를 마친 박정아는 "너무 좋은 경기력이었다. 강팀을 상대로 연패를 끊게 돼 기분이 많이 좋다"고 웃었다.

테일러도 "승리를 함께 일궈낸 팀원 모두가 자랑스럽다. 특히 어린 선수인 임주는(2003년생·미들블로커)와 박은서(2003년생·아웃사이드 히터)가 잘해줬다"며 "오늘 경기를 이겼으므로 우리 팀 누가 경기에 들어가더라도 맡은 역할을 해내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아는 이날 개인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기록인 7개를 포함해 19득점(공격 성공률 50%)을 올렸다.

그는 "타이밍이 좋았다. 경기 전 연습할 때 상대

아시아쿼터 메가광 순서가 맞물려 돌아가서 (메가) 직선으로 때리는 공 잡는 걸 연습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전에 잘 적용됐고 연타와 페인트를 적절히 섞어서 공격했던 것 같다"고 자랑했다.

이날 2세트 중반에 투입된 박은서가 64.29%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10득점, 장위가 블로킹 5개 포함 8득점(40%)을 기록하면서 팀의 열 번째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박정아는 "나와 테일러도 공격 성공률이 좋았지만 특히 우리 (박)은서가 잘해줘서 2세트에서 점수가 뒤집혔을 때 다시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팀의 반격에 큰 역할을 한 박은서를 챙겼다.

16득점(57.14%)을 추가한 테일러 역시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좋았다.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다양해진 것 같다. 박정아가 득점을 많이 함으로써 코트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최근 세터 이원정과 미들블로커 하혜진, 엠퍼형 등의 부상으로 예상치 못한 선발진의 이탈을 겪었고, 백업 미들블로커 임주는와 세터 박수빈 등 어린 선수들이 대신 코트를 밟았다.

박정아는 "어린 선수들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만 해라. 웃기만 해라'고 했다"며 "부담주지 않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주장 박정아와 아포짓 테일러가 팀의 '창단 첫 10승'의 주역이 됐다. 지난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 5라운드 경기를 마친 박정아와 테일러가 10승을 의미하는 열 손가락을 펴 보이고 있다.

대한 복돋았다"고 밝혔다.

한편 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팀의 올 시즌 목표로 세웠던 '두 자릿 수 승수'에 첫 발을 디뎠다.

지난 2022-2023시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선물하고 FA를 통해 페퍼스로 등지를 옮긴 박정아에게 이번 승리는 특히 의미가 크다.

개인 통산 리그 우승 4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4

회 등의 기록으로 '우승 제조기'라 불린 박정아지만 페퍼스 이적 이후에도 팀이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담은 커졌다.

그는 "나 말고도 모두가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10승'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했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이루는 게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경기를 이기는 게 다음 목표"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테일러는 이번 시즌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입단했으나 시즌 초반 어깨 부상으로 교체된 자비치의 대체 선수로 영입됐다. 1라운드 중반에 투입된 테일러는 선수단과 합을 맞추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탓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는 "일단 매일매일 웃으려고 노력했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늘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최대한 열심히 했다"며 "배구가 팀플레이다 보니 한 사람이 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팀 모두가 박정아의 리더십에 잘 따르고 있고 나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패를 끊어낸 페퍼스(10승 19패·승점 30)는 정관장의 4연승을 저지했고, 귀한 승점 3을 추가하면서 5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10승 18패·승점 30)와 승수·승점이 같아졌다. 페퍼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5위 쟁탈전'을 벌인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전남 강다현·이윤주, 금메달 싹쓸이 4관왕 등극

### 동계체전서 전남선수단 금 16개 등 메달 27개 획득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6회 동계체전' 3일차인 20일 광주·전남선수단의 메달 수확이 이어졌다.

전남 선수단은 현재 금 16개, 은 4개, 동 7개를 획득하며 활약하고 있다. 특히 스키 알파인 강다현(여수삼일중 3년)과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윤주(나주 다시초 6년)는 이날 4관왕에 올랐다.

앞서 대회전과 슈퍼대회전에서 정상에 올랐던 강다현은 이날 여중부 회전에서 1분18초05로 1위에 등극했고, 복합(슈퍼대회전·회전 기록 합산)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이윤주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계주 6km에서 이지효(화순초 5년), 최보유(화순초 6년)와 함께 23분 59초 3으로 1위를 기록했고, 앞서 획득했던 클래식 2.5km, 프리 3km, 복합에 이어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크로스컨트리 계주15km 여중부 경기에서는 조다은(화순제일중 3년), 소지희(전남체중 1년), 장원지(화순제일중 1년)가 56분 00초 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앞서 프리7.5km와 복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조다은은 이날 계주 금메달을 더하며 3관왕에

올랐다.

크로스컨트리 계주15km 여고부에서는 전다경(전남체고 1년), 김은아·김민희(이상 전남스키협회 고등부)가 1시간 43분 23초 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계주30km 남고부에서는 성준상·임준범(이상 전남체고 1년), 정한성·성주호(이상 전남스키협회 고등부)가 동메달을 합작했다.

이날 전남 바이애슬론팀도 활약을 이어갔다.

특히 예카테리나 암바쿠모바는 여일부 집단출발 12.5k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혼성계주, 스프린트 경기에서 이어 3관왕에 등극했다.

남일부 집단출발 15km에서는 티모페이 랍신은 은메달을 획득했고, 스타로부치 알렉산더가 동메달을 더했다.

광주 선수단은 이날 스노보드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김규원(광주알파인스노보드스키클럽)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남자일반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은 지난 18일부터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대회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산악 아이스클라이



스키 알파인 강다현이 제106회 동계체전 회전과 복합에서 금메달 2개를 더했다. 앞서 대회전과 슈퍼대회전 1위를 기록했던 강다현이 네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밍 리드·스피드 결승,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 바이애슬론 22.5km·18km계주, 스노보드 프리스타일하프파이프,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 등을 앞두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기업은행전 종료 후 은퇴 행사에서 이야기하는 김연경.

/연합뉴스

## "김연경 보러 가자"... '은퇴 투어' 경기 매진 또 매진

### 흥국생명, 원정 3800석 전량 팔려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의 '은퇴 투어'가 시작된 가운데 두 번째 개별 원정경기 입장권도 매진됐다.

2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경기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

입장권은 지난 16일 일반 판매 2시간 30분 만에 3800석의 티켓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4-2025시즌 현대건설의 홈경기 매진은 흥국생명과 개막전이었던 작년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IBK기업은행이 지난 16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흥경기 종료 후 김연경을 위한 자체 은퇴식을 열어준 게 마중물이 됐고, 다른 구단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

김연경의 원정경기 은퇴 투어는 3월 1일 정관장전(대전 중부체육관), 11일 페퍼저축은행전(광주 페퍼스타디움), 20일 GS칼텍스전(서울 잠실체육관)으로 이어진다.

한편 현대건설은 21일 흥국생명과 흥경기에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오픈에서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골프 전설' 박세리를 시구자로 초청했다. /연합뉴스

## 최지만 "병역 이행 후 KBO에서 뛰고 싶은 맘 커져"

### 일본·한국 진출 놓고 고민

프로야구 LG 트윈스 스프링캠프인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인디언 스피드 파크 야구장에서는 최지만(34)도 LG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다.

최지만은 역대 한국인 야수 빅리거 가운데 추신수(16시즌)에 이어 두 번째로 긴 8시즌을 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기량을 키웠고, 2016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소속으로 빅

리그에 데뷔했다.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를 거쳐 2018년 탬파베이 레이스에 입단한 최지만은 그곳에서 기량을 꽃피웠다. 2020년에는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큰 힘을 보탤었다. 또한 탬파베이에서 팀 분위기를 책임져 구단과 동료,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거친 최지만은 지난해 메츠와 계약하고 빅리그 복귀에 도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팀을 떠났고, 이후에는 새로운 팀에 몸담지 않고 개인적으로

훈련해왔다.

최지만은 KBO리그 데뷔와 일본프로야구(NPB) 진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는 "KBO리그에서 뛰고 지도자로 활동하고 싶은 계획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지만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려면 복귀 의사를 밝힌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최지만은 "선수로 못한다면 지도자가 돼서라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꼭 달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하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